

# 신앙의 정수! 내려놓음!

9월 6일

1과

본문말씀 고린도전서 9:19~27

외울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린도전서 9:23)

주 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마음의 문을 열며

종종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온몸을 던져 가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입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맡은 사역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연결고리**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유인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할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 1.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19절)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A.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종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 2. 바울은 유대인, 율법 없는 자, 약한 자들에게 각각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나요? 바울이 '맞춤형'으로 이들에게 다가간 이유는 무엇인가요?(20~22절)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A.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됨으로 다가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모양이 되기로 결심했고, 낮아진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마음과 맞춤형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행한 모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3.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했다고 고백하나요?(23절)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는 자세를 무엇에 비유하나요?(24~26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A.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 그의 초점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초점에 대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달음질’을 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즉,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얻는 일에만 오로지 전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나라의 상급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자신의 노력하는 자세를 운동선수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운동선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4.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27절)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A.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상실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에게 상받을 자격을 잃게 될까봐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자신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오직 복음의 열매만을 풍성히 남기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했습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모든 것을 오직 ‘복음’을 위해 행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나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연결고리** 바울은 복음전파의 사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모습까지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더 내려놓아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시) 힘든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기도해주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준비해보기 등.

##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기도문 예시)

---

---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권리와 자존심을 모두 챙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를 절제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 기다림의 미학

본문말씀 고린도전서 11:27~34

외울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전 11:33)

주 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서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9월 13일

2과

##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밤새 공부했는데 친구의 성적만 잘 나온다면 어떨까요? 같이 열심히 운동했는데 친구만 살이 왕창 빠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친구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 주며 보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은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녀야 할 모습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봐요.

**연결고리** 성만찬은 진지하게 거행해야 하며 영적인 준비와 더불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만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 1. 바울이 지적하는 성만찬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가요?(27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A. 바울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무례하게 그 의식에 참여하여 결국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연결고리**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 2. 바울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28, 33~34절)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A.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피보라”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성만찬에 참여하려 모일 때,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즉, 성만찬에 참석할 때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나누고자하는 열망으로 나와야하며, 미리 식사를 하고 와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만찬의 교제식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연결고리** 성찬에 바른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 3. 바울은 자신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29절) 성찬의 부당한 참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30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A. 자기 성찰이 없는 성찬은 도리어 자기 심판이 됩니다.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자신을 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찬의 부당한 참여는 약함, 병듦, 죽음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결고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 없는 성찬은 오히려 자기 심판이 되는데, 바울이 이처럼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시다.

### 4. 바울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모습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만찬의 본질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존중하며 바른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피야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말씀대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나요? 다음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고 서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살피며 기다리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성만찬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까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연결고리** 공동체를 대함에 있어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부분에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세워 주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A.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세워주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시) 친구가 실수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등

##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기도문 예시)

---

---

---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피고 서로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성도가 서로 연합해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서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어 주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품고 기다리며 사랑하나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세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말씀 고린도전서 13:1~13

의율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주 제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9월 20일

3과

## 마음의 문을 열며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능력자'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그 사람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고린도교회에도 은사를 가진 능력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이들에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연결고리** 사도 바울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 1.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나요?(1~3절)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A.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연결고리** 말씀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많아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모습을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 2. 바울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요?(4~7절)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A. 사랑은 참음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집약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즉,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마음입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자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또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바울은 사랑을 예언과 방언, 지식과 비교하며 어떻게 설명하나요?(8절)**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A. 바울은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비교하는데,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마지막에 가면 다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사랑은 예언보다, 방언보다, 지식보다 더욱 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의 속성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4. 바울은 무엇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나요?(13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A. 바울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낳고 사랑은 소망을 키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크며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연결고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나는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품고 세워 주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사랑이 있을 때 방언과 예언은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믿음, 소망, 인내의 집합체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며, 인생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있나요?

**연결고리** 우리는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며,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우는 데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6.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어 보고, 실천해 보세요.**

A. 우리가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와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안아주기, 친구를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기 등

##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기도문 예시)

---

---

---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아무리 많은 영적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영적 은사는 충만했지만, 성도들 간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부활신앙! 나의 능력!

본문말씀 고린도전서 15:29~34

의율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주 제

성도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9월 27일

4과

## 마음의 문을 열며

청소년들에게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신앙이 없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봐요.

**연결고리**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부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 1.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땠을 것이라고 말하나요?(29~30절)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A.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세례를 받을 이유도,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삶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결고리** 바울 또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 가운데서 한 가지를 다짐한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 2. 바울은 자신의 위험한 삶 속에서도 무엇을 굳게 다짐하나요?(31b절)

31절b 나는 날마다 죽노라

A. 바울은 자신의 언제나 위험한 삶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자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다짐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음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부활신앙이 그의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 3.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32b절)

32절b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A.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즐기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방탕한 삶, 소망 없는 삶, 미래 없는 삶, 절제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의 삶이 전부이기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현재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현재의 삶이 최우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 4.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33~34절)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A. 사도바울은 부활에 대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즐겁고 여유있게 사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들의 삶을 좇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며,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연결고리** 성도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굳건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5. 나는 바울의 말처럼 부활을 확신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직 주를 위한 것임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나요?

**연결고리** 부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의 질문에서 생각해봅시다.

**6.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늘 깨어 의를 행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을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의를 행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찬양을 찾아 고백하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구에게 나의 언어로 전하기 등.

###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기도문 예시)

---

---

---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성도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